2016 년 9 월 11 일(주일) 찾아오신 예수님(5) "삶의 우물가로 오신 주님"(요 4:1-26)

[1]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요한은 니고데모 같이 명망 있고 지식이어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바닥을 살아도 모두 공통적으로 육적/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처절한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여인은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절박함 속에서 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남성편력이었습니다(18 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 만족 없는 삶 가운데 돌파구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돌파구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은 잠시라도 살 만한 힘을 줄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고, 때로는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환영을 갖게 합니다. 모든 돌파구에는 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집착입니다.

사람이 집착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물질적 영역: 돈과 돈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 음식(알코올, 탄수화물, 약물)
정신적 영역: 사상(이념), 종교성, 지식과 도덕,
관계적 영역: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성 편력, 가족, 친구, 영웅…
행위적 영역: 도박, 쇼핑,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성…

일시적으로나마 만족을 주는(기분 좋게 하는) 것들입니다. 건전하게 사용하는 측면에서 집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선이 매우 애매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집착하면서도 집착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집착과 집착하는 삶의 태도를 우상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2] 집착과 중독 – 우상

집착이라는 행위가 정말 인간의 영생에 가공할 만한 힘을 갖습니다. 집착은 아무 이유없이 하지 않습니다. 집착 대상이 만족을 주면 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이유는 몸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몸의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되어서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다이돌핀… 모두 우리를 평온하고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여 삶의 활력을 갖게 하는 물질 들입니다. 이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오용되고 있음이 문제입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자기의 몸과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사회에까지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증세가 심해지면 정신과에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집착과 똑 같은 의미로 중독이라 부릅니다. 영적 본질적으로 보면 똑 같은 메케니즘(기재)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집착과 중독을 해소하지 않으면 삶이 손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극단적 대표적 중독은 알코올, 마약, 약물입니다. 물질 중독(substance addict) 이라고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어렵고 치열한 치료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독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치료 받아야 할 약물 중독자가 2015 년 통계, 2400 만. 12 세 이상 미국 인구의 약 10%입니다. 치료 받아야 할 숫자 중의 10%만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 반은 6 개월 안에 다시 중독에 빠집니다. 30 세 이하 중독자가 30%가 넘고 약물 중독으로만 1 년 경제적 손실 7000 억불입니다.

중독은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1) 내성(tolerance)입니다. 내성이란 전에 10 의 양으로 쾌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11 을 해야 같은 수준의 쾌락을 얻을 때 내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2) 금단 증상 (withdrawal symptoms)인데, 하지 않으면 생각나고, 강박이 생깁니다. 몸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스포츠 배팅, 도박, 성, 도벽… 제럴드 메이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는 "중독과 은혜"에서 많은 중독 대상을 열거합니다. 논쟁, 승부욕, 어지럽히기, 질투, 험담, 의심, 수다, 환상, 체중, 더 나아가서는 영화, 예술, 유행, 독서, 멋진 사람 되기 등 수십 가지 중독을 말해줍니다(사실 수백, 수천가지…). 자신의 중독 중 하나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폄하해야 직성이 풀리는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그것은 중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더라는 것입니다. 금단 증상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바른 사람되기, 독서, 단정해야 함, 책임감, 예술 같은 것이 왜 치유 받아야 할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시적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고 취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영적 생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교제하고 유익을 끼치면서, 때로는 내 시간과 에너지도 사용하고 희생 해야 하고, 삶의 균형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것만 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건 벌써 중독과 집착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3]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중독 대상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 주시지 않기 때문 입니다. 단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에게 채워 놓으셔야 할 것을 결정하시고 **은혜 안에서만** 행하시기 때문에 일시적 만족/행복의 대상에 전혀 들어가 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와 공동체를 모르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만족을 얻지 못해서 자기 삶의 돌파구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와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의 삶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요. 그것이 나의 집착인지, 건강한 영적/사회적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인지, 말하기 쉬운 것부터 나누어 보십시요.
2. 집착인 줄 모르는 집착도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추어집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 애써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묵상과 나눔으로 가능합니다.
3. 집착과 중독의 문제는 나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맛보는 삶이 집착을 이기는 중요한 구원의 역사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봅시다.
4. 현재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조용한 시간을 내어 주님과 진지한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